

용산구 한남동

'돈줄내리 왔습니다'... 이영자 "어려운 자영업자 위해 힘 되고파"

올해로 연예계 데뷔 30년 차를 맞은 이영자는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를 졸업했다. 그의 본명은 이우미이지만 외모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이영자'라는 이름으로 데뷔했다.

사실 그는 데뷔 이전부터 진행 능력이 뛰어나 1980년대 말부터 이미 여러 밤무대에서 활동하며 밤무대에서는 잘 알려진 유명 MC였다. 1990년대 초 당시 활발하게 활동 중이던 개그맨 전유성은 개그계에 새 인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밤무대와 소극장들을 밤낮으로 돌아다녔다. 그러다 발굴한 인물이 바로 이영자였다.

1991년 MBC의 개그 콘테스트로 연예계에 입문한 이영자는 맛깔난 개그를 선보이며 데뷔 2년 만인 1993년 백상예술대상 '여자 코미디 연기상'을 받았다. 이후 1996년 대한민국연예예술상 희극인상을 수상하는 등 1990년대를 대표하는 개그우먼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영자는 공중과 데뷔 후 MBC '오늘은 좋은날', KBS '슈퍼 선데이', SBS '기쁜 우리 토요일' 등에 출연해 '살아 살아 내 살 돌아' 등 수많은 유행어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2001년 다이어트 광고 과문으로 인기는 지속되지 못했다. 이영자는 30kg의 체중을 감량한 후 다이어트 관련 상품과 다이어트 비디오투를 홍보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성형외과의사 김 모 씨가 이영자가 지방흡입 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 때문에 대중의 차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다.

2003년 방송에 복귀한 뒤에도 부침이 많았으나 곳곳하게 활동을 이어온 결과 현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진행자 자리에 올랐다. 복귀 후 이영자는 이전보다 더 신중한 모습으로 방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거침없는 입담과 깔끔한 진행으로 호감형 연예인으로 거듭나며 솔직하고 인



한남더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810

간미 넘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2019년 9월 중영된 KBS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에서 진행자로서의 매력을 보여줬으며 이외에도 tvN '현장토크쇼 택시' JTBC '랜선라이프', MBC '전지적 참견 시점', KBS2 '불빨간 당신' 등에서 진행

자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그 덕분에 2018년 이영자는 '2018 MBC 방송연예대상'과 '2018 K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두 방송사에서 대상을 받은 여성방송인은 이영자가 최초로 화제를 모았다.

대상을 받은 이후에도 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 SBS '고민 해결 리얼리티-인터뷰게임', SBS Plus '언니한텐 말해도 돼' 등에 출연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 이영자는 채널 IQ의 새 오리지널 예능 '돈줄내리 왔습니다'에서 제이슨과 MC를 맡는다. '돈줄'은 돈과 혼줄의 합성어다. '돈으로 혼내준다'는 의미로 혼줄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와 정반대로 물건이나 음식을 많이 팔아줘 응원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돈줄내리 왔습니다'는 코로나로 인해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위해 탄생한 푸드 버라이어티다. 한숨으로 셔터를 내리는 자영업자의 가족, 지인의 의뢰

를 받아 도전 먹방 목표를 정하고, 먹방 크리에이터들이 비밀리에 방문해 사장님이 웃을 때까지 음식을 주문해 먹으며 매출을 올려주겠다는 계획이다.

재료를 모두 소진하면 셔터를 내린 뒤 자영업자들의 고된 현실을 듣고 희망 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단순히 먹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자영업자들에게 '돈줄'이라는 기적 같은 하루를 선물해 줄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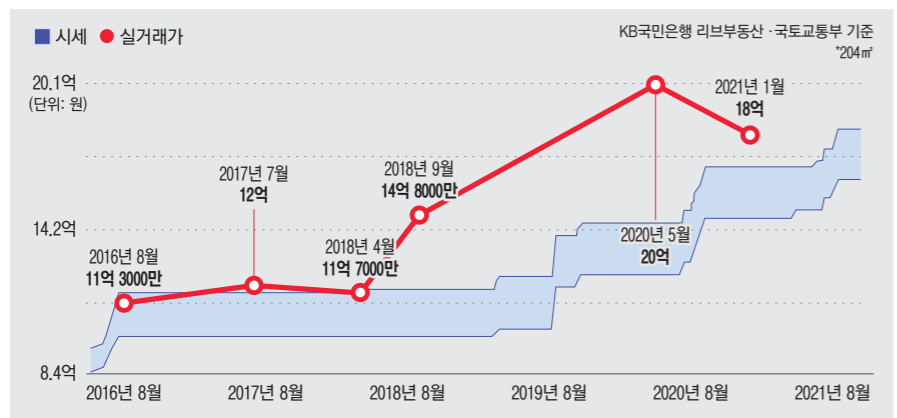
여러 방송을 통해 소개한 음식점들로 일명 '이영자 맛집 리스트'를 만들어낸 이영자는 현장과 스튜디오를 넘나들며 개성 강한 먹방 크리에이터들을 하나로 이끈다. '돈줄내리 왔습니다'는 이달 19일 밤 10시 30분 첫 회가 방송된다.

이동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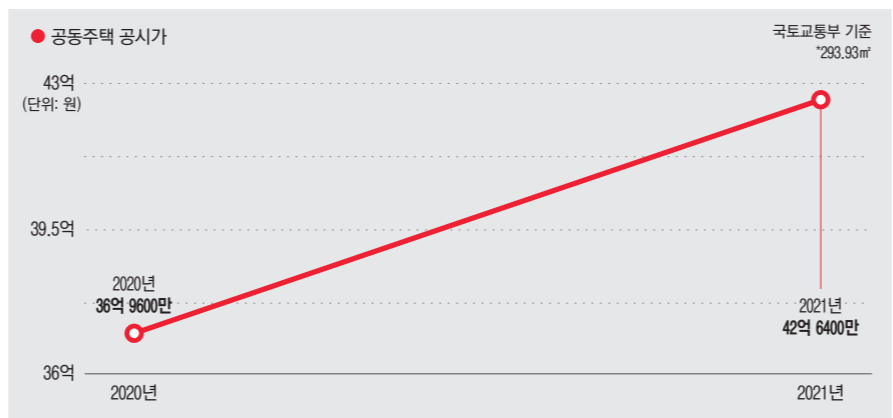
현대리버티하우스

서울 용산구 한남동 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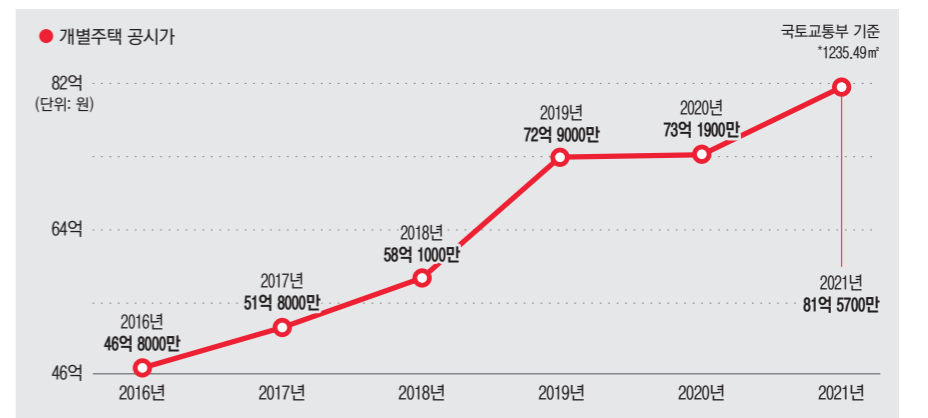
나인원한남

서울 용산구 한남동 829



단독주택

서울 용산구 한남동



김기도

전)국회의원



경상남도 사천군 삼천포읍(현 사천시)에서 태어난 김기도 전 국회의원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을 수료하고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후 문화방송(MBC)에서 기자로 일했다. 정치부장 및 부국장을 맡았으며 뉴스데스크 앵커 등을 지내기도 했다. 이후 1983년부터 1988년까지 청와대 방송담당 공보비서관을 맡았다. 이외에도 안전기획부 비서실장,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외래교수,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 민자당 제3정책 조정위원장,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이사



장 등을 역임했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때 민주자유당 후보로 경상남도 삼천포시 사천군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돼 4년간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지민(박지민)

현)가수



방탄소년단 멤버인 지민은 가수 비의 무대를 보고 가수의 꿈을 가지게 됐다. 부산예술고등학교 무용과에 전체 수석으로 입학, 춤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그는 현재도 춤을 잘 춘다는 아이돌 중에서도 단연 최고로 불린다. 또한 지민은 데뷔 초부터 팀 내 리드보컬을 맡아 고음을 완벽하게 주도하며 춤과 함께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3년여간의 고된 연습 끝에 2013년 싱글 앨범 '2 COOL 4 SKOOL'로 데뷔했다. 2015년부터 엄청난 인기를 누렸으며 현재는 전 세계적인 그룹으로 거듭났다. 지난해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



드 차트에서 '핫100' 정상에 올랐으며 올해 5월 발매한 곡 'Butter'로 9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이후 발매한 곡 'Permission to Dance' 또한 많은 인기를 얻었다.

이재용

현)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게이오기주쿠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그는 1991년 삼성에 총무그룹 부장으로 입사한 후 경영전략담당 상무 및 전무를 거쳐 최고운영책임자(COO) 부사장 및 시장을 역임하고 2012년부터 삼성전자 부회장직에 올랐다. 이 부회장은 미국 전자부품업체 '하만', 미국 신생기업 '루프페이', 인공지능업체 '비브' 등의 대규모 인수합병을 이뤄냈다. 한편,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돼 서울구



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이재용 부회장은 법무부의 가석방 대상에 포함돼 이달 13일 가석방됐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지하시설물 정보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증가

울산광역시

울산시가 공공도로 하부에 매설된 지하시설물의 위치 및 속성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5600여건의 약 73%에 해당하는 4068건을 기록하는 등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지하안전법'의 개정 등으로 지하안전 평가가 대상이 강화돼 지하시설물 정보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은 상수, 하수, 가스, 전기, 통신 등 8종의 지하 관로 및 부속시설물을 통합데이터로 구축해 운영되고 있다.

울산시의 경우 1997년 국토부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과천시를 제외하고는 가장 빠른 1998년 시작해 2004년부터 통합정보시스템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구축한



울산시 전경

시설물은 △하수 4204km △상수 3210km △가스 2775km △통신 2107km 화학 739km △송유 175km △스팀 66km 등 총 연장 1만3882km에 달한다.

주요 이용 기관으로는 울산시와 산하기관을 비롯해 경동도시가스, 한국전력공사, 케이티(KT) 등의 유관기관과 덕양, 대한유화, 에스케이(SK)에너지 등 100여개의 국가산업단지 기업체들이 함께 활용하고 있다.

한편 시는 토목사업이나 굴착공사로 신

규 관로나 지하시설물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공측량 성과심을 받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자료를 즉각 탑재함으로써 지하시설물 정확도 관리에 힘쓰고 있다. 또한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을 위해 국토부와 연계해 매년 상·하수도 정보 수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재질, 관경, 연장 등의 속성정보와 위치정보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해 속성정보를 확인하고 시설물정보시스템에서 오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시민 도시발전 위해 온라인 정책토론회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는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 실현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회의 도시개발 분야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이달 11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도시개발분야 디지털 뉴딜정책 선도로 스마트시티 조성을 주제로 안승남 시장이 토론회를 이끌었다. 최주영 연세대학교 교수, 조우현 경기주택도시공사 균형발전처장, 김성호 한국시스템엔지니어링협회 회장, 김재남 구리도시공사 사장 등 각계분야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해 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상황을 공유하고 스마트 시티 도시개발 전략 방안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좌장으로 나선 안승남 시장은 "우리 시에서는 디지털 뉴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경제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한강변 도시개발사업과 전자상거래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도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 실현 스마트시티 개발 전략 모색

시개발정책에 대한 추진 방향을 설정해 스마트시티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먼저 토론회에 나선 최주영 교수는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물량 확보, 둘째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 전략과 단계별 개발계획 수립, 셋째는 계획 구역을 확정하고 전략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시장은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공공기여 방안, 개발제한구역 해제, 단계별 계획 수립 등을 사업시행자인 구리도시공사, 민간사업자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우현 처장은 "경기도 남부에 물류 인

프라가 편중된 가운데 북부인 구리에 처음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 예상 분양가에 대한 상세 전략으로써 입주의향 기업 사전 협의를 통한 맞춤형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재남 시장은 "인창동에 추진 중인 구리 랜드마크 타워에 설치될 문화체육시설에 대해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행복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다"며 "구리 랜드마크 타워가 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역철도망 확충과 관련해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 김성호 회장은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등 시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희망한다"며 "향후 구리역 환승센터 설계 시에는 자전거 같은 개인 이동 수단에 대한 고려를 포함해 차세대 환승센터의 기초가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